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나요?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준 것들,
개발자로서 좋은 선택을 내리는 방법과
소통으로 경쟁력 얻기

2024.05.13

제 5회 컴퓨터공학과 연합 DevTalk Seminar



김성현 (Kim Sung Hyun)



- 티맥스핀테크 연구원(2023.08-현재)
- (프론트엔드 개발자)
-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컴퓨터공학과 졸업(2023.02)
- ICPC Sinchon 알고리즘 캠프 초급반 강사, 프로그램 관리팀장
- Sogang ICPC Team 임원(2022)
- SPC, 청정수컵 관여, UCPC 본선진출 등 알고리즘 관련 활동 다수
- SW 마에스트로 13기(2022)
- 블로그 witch.work 운영중

앞선 테크리드 분들의 발표...

KeyNote 연사 옥찬호님

現 EJN Tech Lead

- 前 모멘티 엔진 엔지니어
- 前 넥스코리아 클라이언트 게임 프로그래머
- Microsoft Developer Technologies MVP
- C++ Korea 창립 및 운영
- Reinforcement Learning KR 운영진
- 다수 대학 개발 동아리 강의 진행
(2024년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UNIST)
- IT 전문서 다수 번역



옥찬호 Chris Ohk
EJN Tech Lead

KeyNote 연사 장현석님

現 캐치테이블 B2C 프론트엔드 리드

- 前 우아한형제들 테크코스교육개발팀 / 로봇서비스 개발팀
- 前 카카오페이 모빌 서비스플랫폼팀 프론트엔드 개발자
- 前 스마일게이트 웹 프론트 공통 개발팀 프론트엔드 개발자
- 前 에이전시 웹 개발자
- 프로그래머스 프론트엔드 데브코스 멘토
- 우아한형제들 테크코스교육개발팀 프론트엔드 코치 & 강사
- 우아한형제들 우아한테크캠프 프론트엔드 멘토
- 네이버 부스트캠프 웹 멘토
- 엘리스 웹 멘토
- F-Lab 프론트엔드 멘토
- 코드잇 리뷰어 & 멘토
- 제로베이스 커리어 코칭
- 메가바이트 커리어 코칭
- 패스트캠퍼스 커리어 코칭



장현석 Poco
캐치테이블 B2C 프론트엔드 리드

앞선 테크리드 분들의 발표...

KeyNote 연사 옥찬호님

現 EJN Tech Lead

- 前 모멘티 엔진 엔지니어
- 前 넥슨코리아 클라이언트 게임 프로그래머
- Microsoft Developer Technologies MVP
- C++ Korea 창립 및 운영
- Reinforcement Learning KR 운영진
- 다수 대학 개발 동아리 강의 진행
(2024년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UNIST)
- IT 전문서 다수 번역



옥찬호 Chris Ohk
EJN Tech Lead

KeyNote 연사 장현석님

現 캐치테이블 B2C 프론트엔드 리드

- 前 우아한형제들 테크코스교육개발팀 / 로봇서비스 개발팀
- 前 카카오페이 모빌 서비스플랫폼 프론트엔드 개발자
- 前 스마일게이트 웹 프론트 공통 개발팀 프론트엔드 개발자
- 前 에이전시 웹 개발자
- 프로그래머스 프론트엔드 데브코스 멘토
- 우아한형제들 테크코스교육개발팀 프론트엔드 코치 & 강사
- 우아한형제들 우아한테크캠프 프론트엔드 멘토
- 네이버 부스트캠프 웹 멘토
- 엘리스 웹 멘토
- F-Lab 프론트엔드 멘토
- 코드잇 리뷰어 & 멘토
- 제로베이스 커리어 코칭
- 메가바이트 커리어 코칭
- 패스트캠퍼스 커리어 코칭



장현석 Poco
캐치테이블 B2C 프론트엔드 리드

나만 빼고 다
테크리드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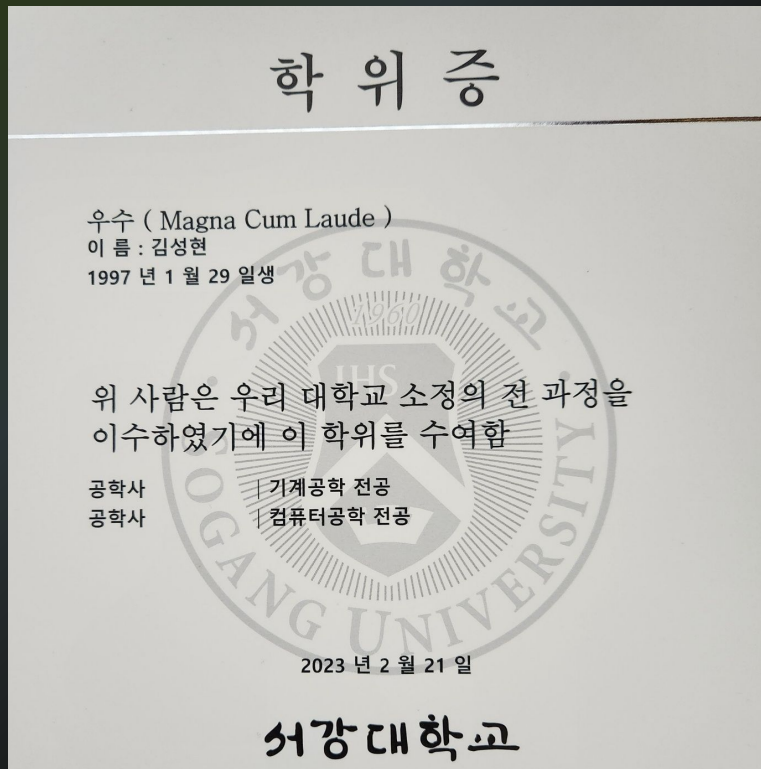
앞선 테크리드 분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조금 앞서 고민한 사람의 이야기
- 나를 여기까지 올려준 나름의 무기(?)들

주관이 담긴 내용이기기는 하지만 발표를 듣는 가치는 있을 거라고 생각

한번 믿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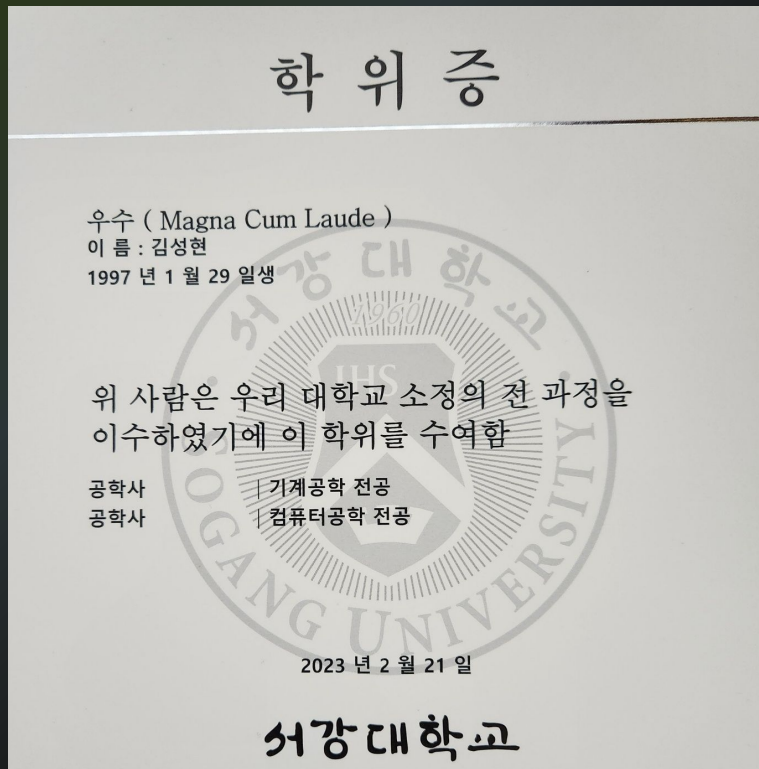


홍익대 출신도 아니고

순철(?) 컴공도 아님

시작도 늦었던 편이고..

한번 믿어주세요



근데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개발자로서 좋은 선택을 하는 법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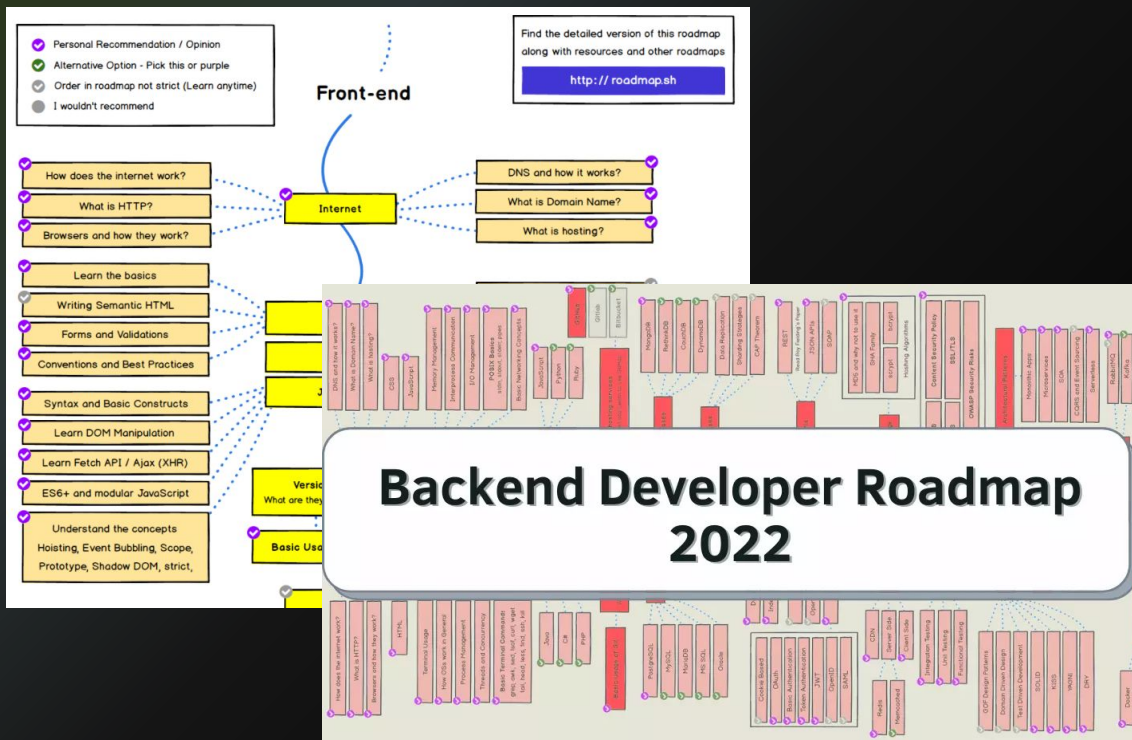
뭘 해야 하지?

나 같은 게 개발자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가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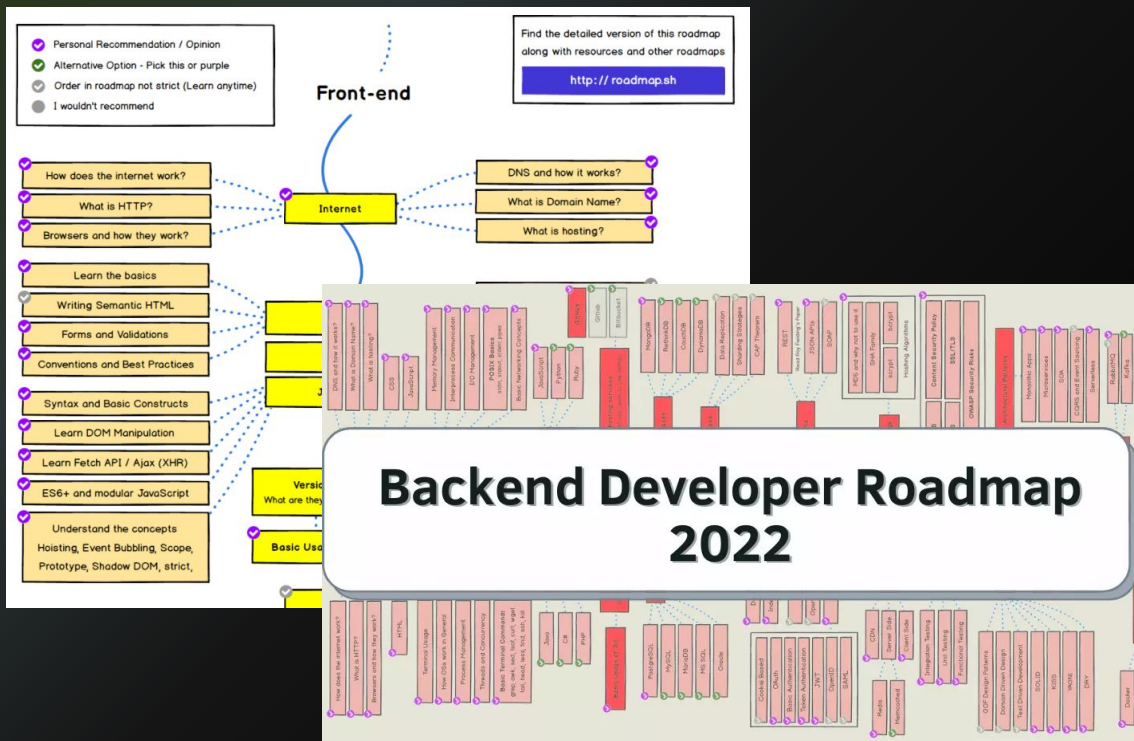
어떻게 해야
개발자로서
경쟁력을 가질까?

물론 할 건 너무 많다



이거 다 하면
고수가 된다

물론 할 건 너무 많다



근데 인간이면
다 못함

우리 대부분은 슈퍼 개발자가 아니다

내가 개발을 시작할 때 이미 동갑 누군가는 **10년째** 개발을 했다니까요?

우리 대부분은 슈퍼 개발자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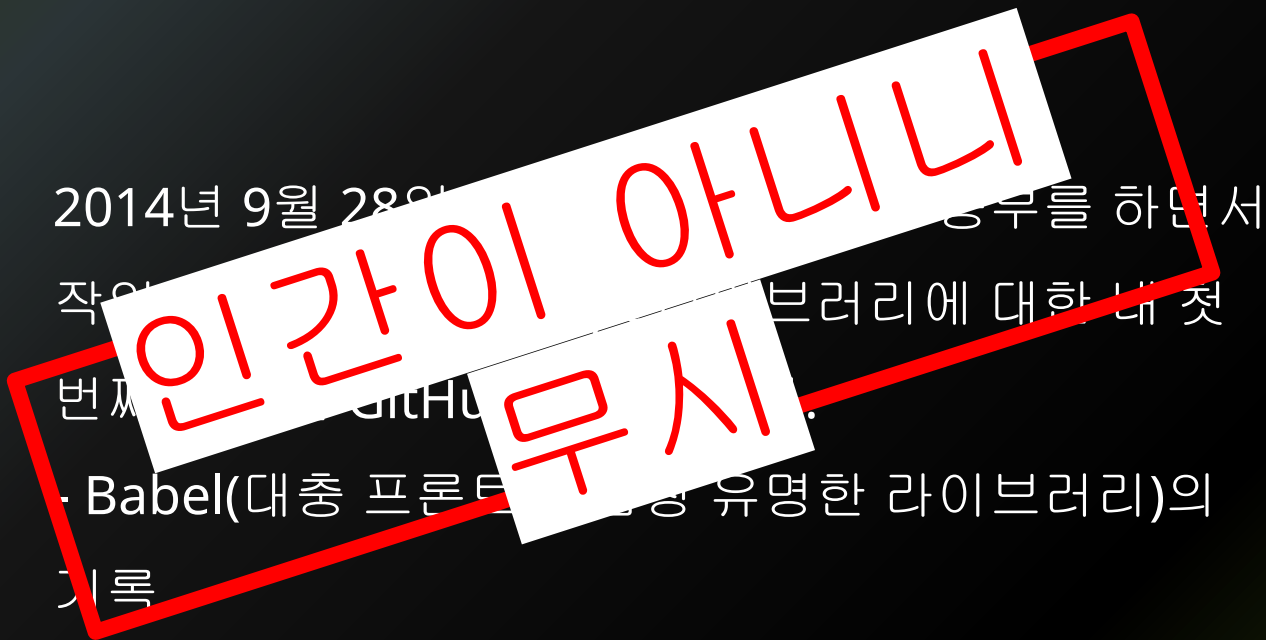
내가 개발을 시작할 때 이미 동갑 누군가는 **10년째** 개발을 했다니까요?

2014년 9월 28일 나는 고등학교 시험 공부를 하면서 작업하고
있던 Javascript 라이브러리에 대한 내 첫 번째 커밋을
GitHub에 푸시했다.

- Babel(대충 프론트의 엄청 유명한 코어 라이브러리)의 기록

우리 대부분은 슈퍼 개발자가 아니다

내가 개발을 시작할 때 이미 동갑 누군가는 10년째 개발을 했다니까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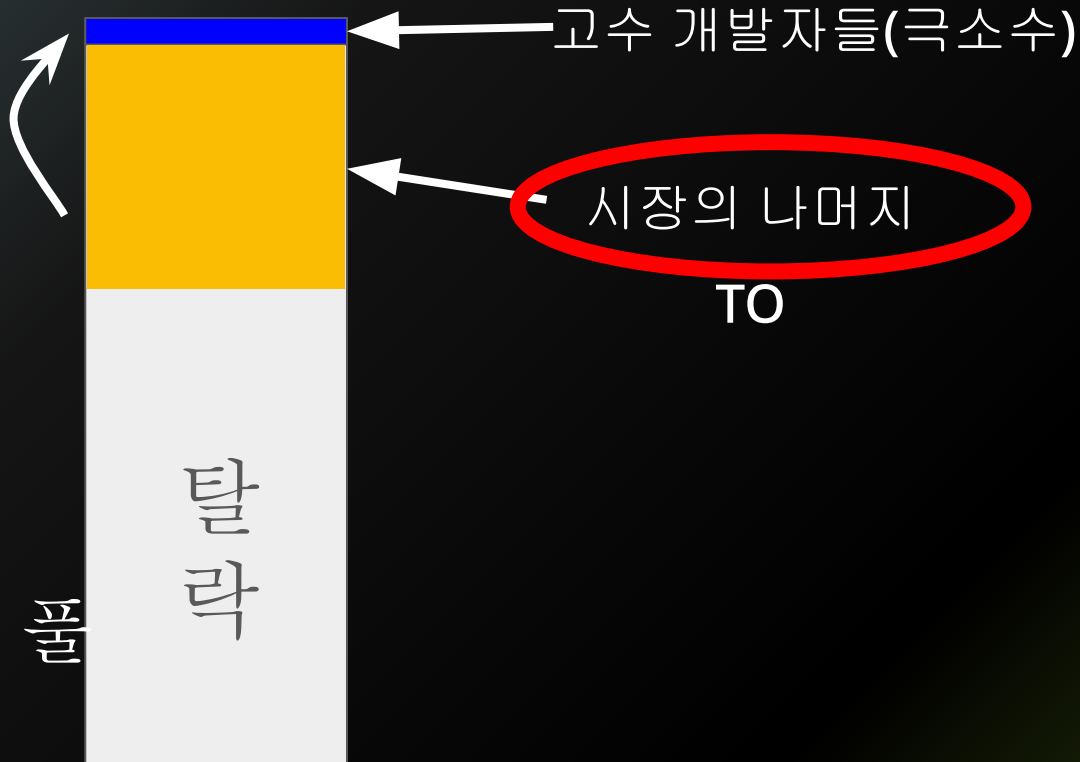


고수들은
너무 적기 때문

원본은 팝콘이나
가져오라는
게 아니었다고

우리의 목표

이건 당장은
좀...



한 곳 차이만 있으면 된다

공식 문서 번역

작업/공부를
블로그에 기록하기

오픈소스 기여
(오타수정이라도...)

막간

우리의 고민: 어떻게 개발자로서 경쟁력을 가질까요? (특히 취업...)

→ 대단한 게 아니고 한 곳 차이들을 모아 나가면 된다

막간

우리의 고민: 어떻게 개발자로서 경쟁력을 가질까요?(특히 취업...)

→ 대단한 게 아니고 한 곳 차이들을 모아 나가면 된다

그럼 결국
뭘 해야 하죠?

그럼 결국 뭘 해야 하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를 거라는 건 다 알죠?

→ 좀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질문으로 바꿔보자

말과 행동으로 대답할 질문

나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중에서 개발은 내게 뭐지?

왜 개발자 하세요?(면접때 물어봄)

블라블라 ✓

내가 생각하는 판교 개발자 삶.txt

국방과학연구소 · OmGg87

6일

판교 한복판 복층 오피스텔

아침 9시 기상

탄력근무제라 10시에 출근할 계획

잉글리스 토스트와 베이컨 & 서니사이드업 에그

간단한 식사

전동 스쿠터를 타고 출근

5분만에 회사 도착

회사 카페에서 커피한잔 주문(직원은 무료)

커피를 마시며

회사내부망에 접속

2인1조로 일하는데 1명은 유럽으로 휴가중이라는 공지

새로운 이슈가 생겼는지 느낌표 알림을 클릭하니
버전업된 환경이 구형시스템과 새로운 충돌을 일으킨
모양

간단히 3줄 고쳐주니 잘 돌아감.

회사 내부 시스템은 빌드부터 테스트, 최종 시스템에
로드까지

원클릭 전자동이라 단지 푸시 한번만 해주면 끝.

어느덧 점심시간

회사 식당에서 유기농 식단으로 간단하게 식사한후

정자역까지 산책

오후는 회사업무와 상관없는 사이드 프로젝트 진행

이번에 회사에서 따로 개발지원금을 받은 상태라 동료
들과 열심히 개선작업중

오후 4시 퇴근

헬스장으로 향해 운동

띠리링 폰

월급이 입금되었다는 문자

'월급여 9,879,800원'

집에 도착해 와인한잔과 함께 블라인드 실행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programming&no=1032713>

@ IT 라운지

변형 질문들(면접때 물어봄)

FRONT-END

VS

BACK-END

왜 네카라 안가고
여기 오셨나요?

거기 떨어져서요
ㅋㅋ

결국 이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내게 개발은
어떤 의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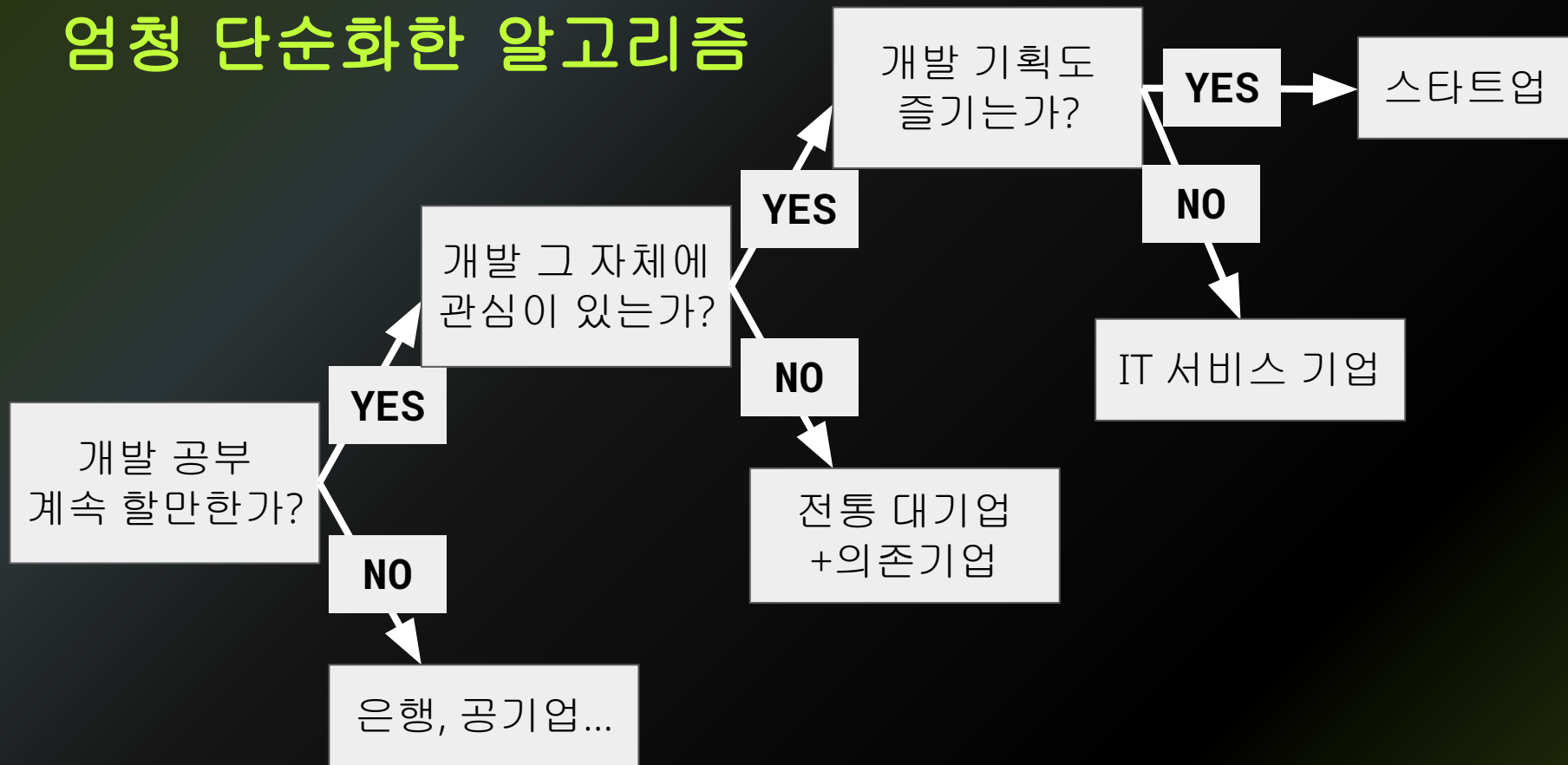
여러분들의 앞에 놓인 선택 - 기업분류

- 하드웨어 기반으로 성장한 전통적인 회사
 - 삼성, 현대, **SK**, 두산...(삼척현이 그래도 좀더 **IT**에 신경써줌)
- 여기에 의지하는 회사
 - 삼성**SDS**, **LG CNS**, 현대오트오버...
- 비 **IT**에서 독자적인 영역이 있는 회사
 - 은행, 공기업, 공사...
- 여기에 의지하는 회사 - 흔한 **SI**

여러분들의 앞에 놓인 선택 - 기업분류

- IT 기반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성장한 회사
 - 네카라쿠배당토, 마켓컬리, 무신사...
- 위의 기업이 되고 싶어하는 스타트업들
 - 원티드 등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음

엄청 단순화한 알고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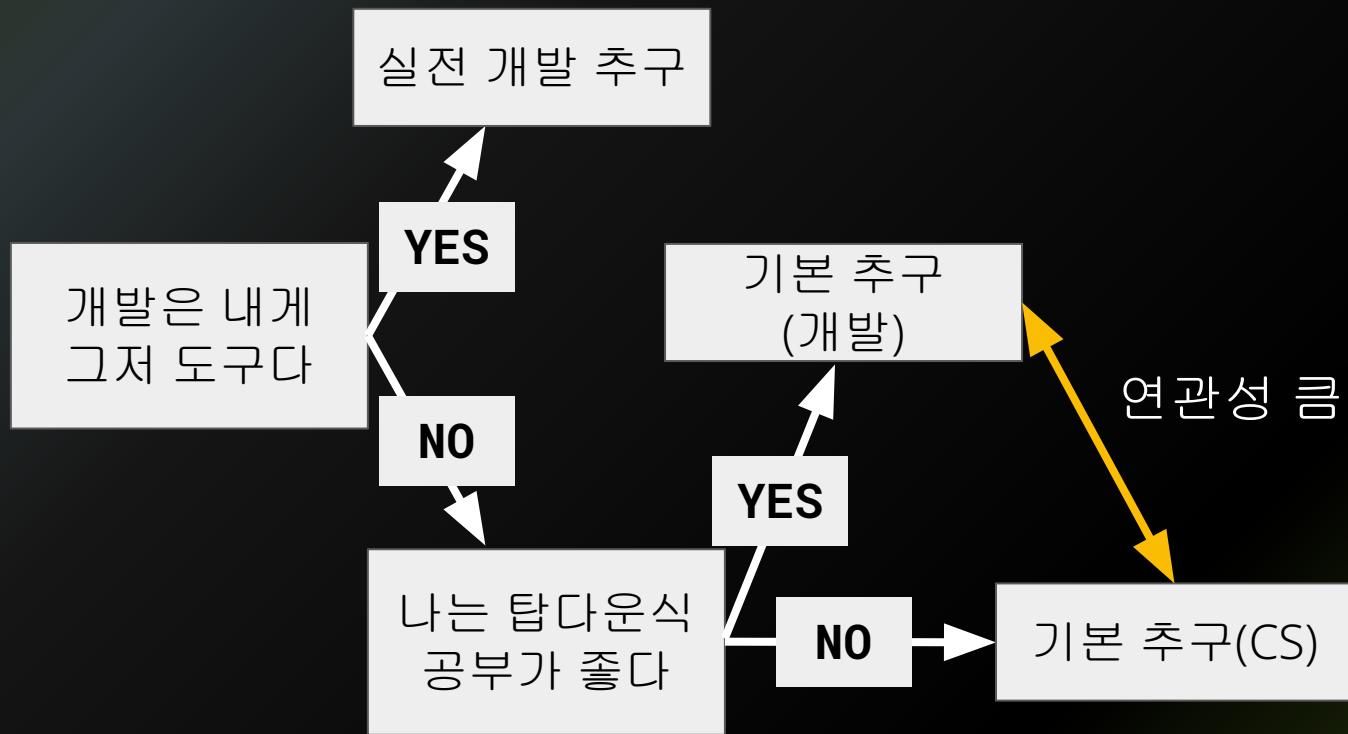
예를 들어서...

- 비 IT의 독자적 영역이 있는 은행, 공기업들의 보통 느낌
 - 시키는거 재깍재깍 잘 끝내고
 - 회식 잘 나오고 술 잘먹고 쾌활하고 깔끔하고 둥글둥글하고
 - 전통적인 사회의 1인분 하는 남자상
 - 하지만 돈을 많이 주고 안정적, 워라밸
- 개발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 개발 외의 행복이 이미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앞에 놓인 선택 - 공부방향

- 기본 추구(CS)
 - 수업 내용 탐구하기, 백준 풀기, 학부연구생...
- 기본 추구(개발)
 - 언어 원리/역사 탐구, 오픈소스 개발/기여...
- 실전 추구(개발)
 - 학회 프로젝트, 개발 연합동아리...

엄청 단순화한 알고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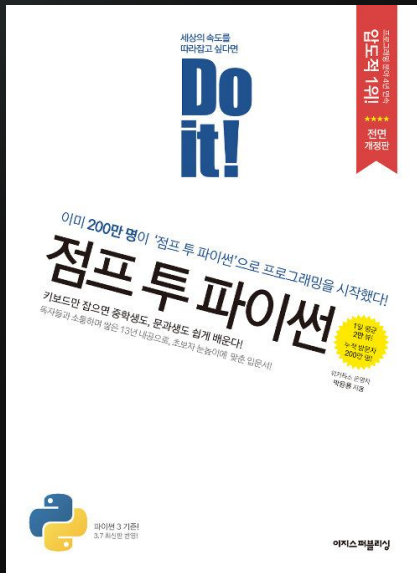
나의 이야기 (풀버전은 블로그에 ...)

MEE2011	고체역학	C+
MEE2022	열역학I	C-

MEE2012	유체역학I	C0
MEE2013	동역학	B+


기계공학이 싫었다

어쩌다 프로그래밍



군대 업무 컴퓨터에
누군가 게임을 만듦 나도 해보려고 배움 그리고 백준 조금

그렇게 만난 멋진 사람들



음악들은 어피치


```
C- main.cc u X
cpp > C- main.cc 3 ...
1
2 #include <iostream>
3
4 int main(){
5
6     if(false){
7         std::cout << "Hi!\n";
8     }else while(true){}
9
10 }
11
12 void hello(){
13     std::cout << "Hello World!!!\n";
14 }
15
```

PROBLEMS OUTPUT DEBUG CONSOLE TERMINAL PORTS

cpp, ~A:clang++ -O3 main.cc -o main && ./main
Hello World!!!

진짜 개환장할 UB군


오전 2:38



치맥하는 제이지

?ㅋㅋ


오전 2:40



음악들은 어피치

FlowerTheFlower420 · 10h ago

Ah yes, undefined behavior. In C++, an empty while true loop is undefined behavior, so the compiler is free to replace the else branch with "unreachable". The compiler also knows that the else branch is always executed if the if statement is reached, so that must also be unreachable. Thus, main is an unreachable function, which is optimized to an empty function in assembly, which falls through to the next function.



치맥하는 제이지

비어있으면

6


ub였군

6

ㄷㄷ

6

오전 2:40




음악들은 어피치

ㄹㅇ

6

오전 2:41



운동하는 라이언

zzz그것도 있잖아

6

while 조건문에

6

절대 불가능한 조건 넣어두고

6

body에 sideeffect 안넣으면

6

최적화당해서 루프 안들어감

6

오전 2:47

새벽 3시에 ub 이야기로 신난 미친

6

오전 2:50

새벽 3시에
C언어 UB 얘기중

아무도 안시켰는데 좋아서 공부를 함;

2024 DevTalk Seminar

고민 중 병에 걸려버림;



크론병(군면제급)에
걸려서 저승 문턱 다녀옴

죽을 뻔 하고 진로 변경하기

개발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렇게 개발하고 공부하는 게 좋아?”

1초도 안 망설이고 “응”이라고 대답이 돌아왔고

그 길로 복수전공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왜 개발하냐고요?

제가 본 제일 멋진
사람들이 여깁으니까

그리고 먹고 살 만도 하니까...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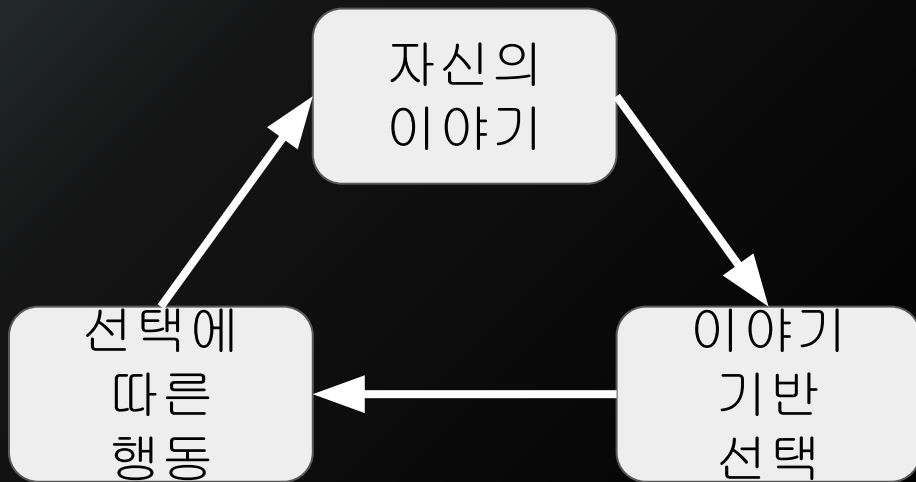
그래서 선택하기

- IT 서비스 기업
 - 거기 제일 멋진 사람이 많으니까
- 스터디, 커피챗 하고 다니기
 - 멋진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주변에 두고 싶어서
- 기술에 딥다이브하는 공부방향
 - 파고드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멋있었어서 따라함

구조를 갖춘 이야기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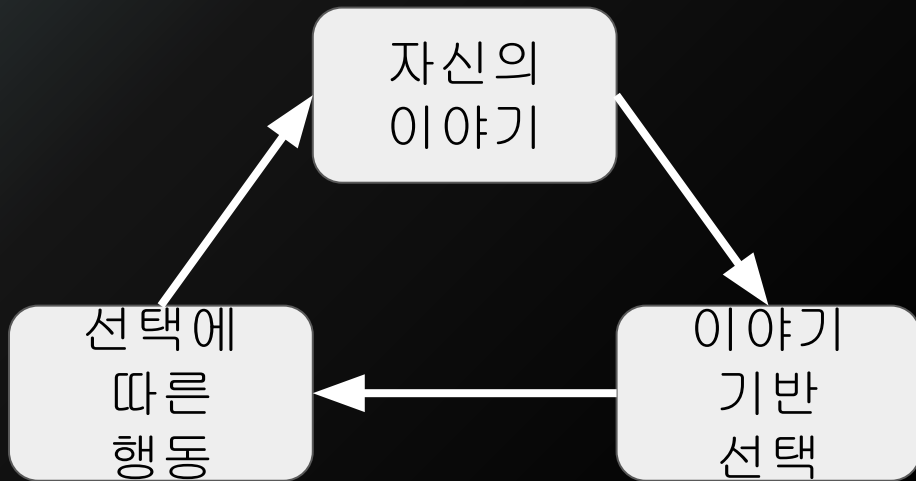
물론 저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라고 경쟁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구조를 갖춘 이야기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구조와 흔적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개발은 돈버는 수단이라고 누군가 말한다

예를 들어서

개발은 돈버는 수단이라고 누군가 말한다

- 그 사람이 영단어 앱도 게임도 만들어서 돈벌려고 해봤고
- 창업도 해봤고 외주도 뛰어봤고
- 개발 유튜브도 하고 이거저거 해봤다면

다 실패했다고 해도 누가 그걸 무시하겠습니까?

지식보다는 자신만의 이유를

기간	PART 1 프론트엔드 기본 학습			PART 2 프론트엔드 심화 학습		
	1~3개월 차			4~6개월 차		
학습내용	온라인 강의 수강 (원하는 시간 및 스케줄로 무제한 수강 O, 실시간 강의X, 정해진 시간표X)					
	매월 새로운 강의 업데이트 (6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공개 예정)					
	매주 알고리즘 코딩테스트 (개강 후 3주차부터 진행)					
	HTML	CSS	JavaScript	React	Vue.js	TypeScript
	자료구조	알고리즘	과제 해설강의 or 모범코드	Computer Science	Git	과제 해설강의
	개인 프로젝트 과제 수행 (HTML/CSS, JavaScript)			개인 or 팀 프로젝트 과제 수행 (프레임워크 활용)		
교육과정 운영사항	코딩테스트 & 과제 통과 시 PART 2 조기수강 가능			우수 수강생 대상 오프라인 선발 교육과정 입과기회 제공(전액 무료)		
	수강생 성취도 평가 모니터링			우수 수강생 대상 전담강사 코드리뷰 수업 및 백엔드 협업 프로젝트 진행		
	업계 TOP 현직자의 라이브 세션 특강 월 3회 진행 (현직자의 경험 및 노하우 공유, 실시간 질문 가능)					
	탈락 제도 / 기수별 수강생 커뮤니티 운영 / 수료생 DB 및 취업연계					

솔직히 지식은
부트캠프가 잘 가르침
근데 부트캠프 출신들
대우는...

월 선택하든 괜찮다. 하지만...

- 자신에게 개발이란 무엇인지 확실히 하자
- 그걸 뒷받침하는 시간을 쌓자
- (처음에 내게 개발은 멋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수단이었다)

→ 취업으로 가까이 가는 길

→ 물론 행복으로도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

내가 얻었던 것들

- 면접때 개발자 시작한 동기는 늘 깔끔하게 넘김
- 블로그+추천서 덕에 면접에서 기술질문 거의 안 받기도 하고
 - “기술 질문으로 털릴 줄 알았어요”
 - “블로그 보고 와서 기술 질문 별로 안 해도 될 거 같아서요”
- 자기소개 글만 보고 스타트업에서 연락 온 적도 있음



김성현(Sung Hyun Kim)

대단한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멋진 사람들이 내는 빛을 따라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찾아오신 당신과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마녀`라는 닉네임을 주로 씁니다.

[Github](#) [BOJ](#)

소통으로 경쟁력 얻기

좋은 소통은 경쟁력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소통들

- 다른 개발자와 협업/소통
 - 회사일, 사이드 프로젝트...
- 다른 부서와 협업/소통
 - 회사일, 기획 회의...
- 그 외 지나치는 수많은 개발자들과 소통하기
 - 커피챗, 각종 컨퍼런스 자리들, 뒤풀이...

우리가 해야 할 소통들

- 다른 개발자와 협업/소통
 - 회사일, 사이드 프로젝트...
- 다른 부서와 협업/소통
 - 회사일, 기획 회의...
- 그 외 지나치는 수많은 개발자들과 소통하기
 - 커피챗, 각종 컨퍼런스 자리들, 뒤풀이...

생각보다 중요한 평판과 이미지

- 레퍼런스 체크
- 각종 컨퍼런스, 발표, 세미나 연사
- 각종 컨퍼런스, 발표, 세미나 참석/기여 기회
-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스터디
- 추천 입사 전형, 수시채용 관련 내부정보/추천서

등등 적당한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많다

사실 이 발표도...

이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 회사 다른 부서 사람들
- 커피챗한 사람들
- 각종 컨퍼런스 자리들
- 등등의 느슨한 인연들

이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 회사 다른 부서 사람들
- 커피챗한 사람들
- 각종 컨퍼런스 자리들
- 등등의 느슨한 인연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사로잡죠?

모두와 친구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 관심없는 일곱 명은?

→ 업무적으로만 보거나
한 두번 보고 끝

"관심없는 일곱 명"을 공략하기



좀 더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내가 더 많은 걸 얻기 위한
일종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음

나도 발표하면서 지금
여러분과의 게임에서 한번 이겼음

그럼 우리 뭘 해야 하는가?

다른 개발자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인상 심어주기
나의 방법론 2가지

- 적극적인 모습 보이기
- 솔직하게 대하기

인싸력과 는 별
상관이 없다

친구가 되려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적극적인 인상 남기기

#1_자유로운담소 ▾

2023년 11월 27일 ▾

454

캠버스

김성현 오후 5:54

자유로운 담소니까..커피챗 제안을 공개적으로 올려봐도 되겠죠?? 아니면 알려주세요...늘 이런 걸 해보고 싶다고 마음으로만 바랐는데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블로그(<https://witch.work/>)를 운영하고 있고요(살의 지도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프론트 1년차(x달차?)입니다. 글도에서 글도 쓰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나름 댓글도 많이 남겨 봤습니다. 하지만 이 400명이 넘는 분들 중에 제가 놓친 분들도 많을 테고 ~저도 제가 가진 것에 관심을 갖고 그걸 나눌 수 있는 분들과 많이 뵙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홍보(ㅋㅋ)도 해볼 겸 공개적으로 올려 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써보면 제가 나뉘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 2021년부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약 170개의 글을 썼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그러면서 많은 발전을 했고 여러 생각이나 노하우 같은 것도 생겼어요. 요즘은 그래도 괜찮게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ㅋㅋ 블로그 운영에 대한 걸 나눌 수 있어요.
- 뭐든 꽤나 깊이 파고들어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알고리즘 대회준비도 오래 해왔고, 최신 기술도 좋지만 JS나 TS의 근본적인 부분을 까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 즐겁게 서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 기계공학과 출신이고, 알고리즘 대회를 오랫동안 준비했고,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이쪽을 아시는 분이 본다면 꽤 특이하다고 생각할 길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런 경험이 궁금하시거나 뭔가 비슷한 부분을 겪고 있는 분이려면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없어도 상관없지만 바라는 게 있다면...

- 이렇게 있어 보이는 척 적었지만 사실 좀 재미없게 살았습니다..그래서 요즘은 취미를 가져보려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엔 용기를 내서 밴드 공연에 가봤답니다. 제게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이야기해주실 분 대환영입니다.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백엔드와 달리 프론트는 뭔가 정형화된 커리어 패스라는 게 좀 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1년차 프론트로서 앞으로에 대한 고민이 많 습니다. 이런 부분을 나누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분도 좋습시다!
- 사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1입니다. 하지만 이 바닥에서 남는 건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기를 뻔려 가면서도 열심히 다니려고 해요. 많이 만나주세요..

관심있는 분이 계시다면 DM을 주시거나, 이모지라도 달아주시면 제가 꼭 기억했다가 DM 드리겠습니다. 그럴 리 있나 싶긴 한데 만약 너무 많다면 글도가 끝나고라도 꼭 만나뵙겠습니다. 아무도 안해주면 쓸쓸하니가 많이 와주세요!

71 53 26 4 2

친구 메시지

약 450명에게
공개 커피챗
제안
이모지 약 70개

결과는?

70명 중 딱 2명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

- 다른 시니어들이나 C레벨에게 물어봐도 먼저 연락을 주는 건 10% 미만
- 직접 행동만 취해도 10%로 보일 수 있다!
- 개발로 10% 되는 것보다 훨씬 쉬움

또 저렇게 공개적으로 구인하면
다들 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보게 된다

결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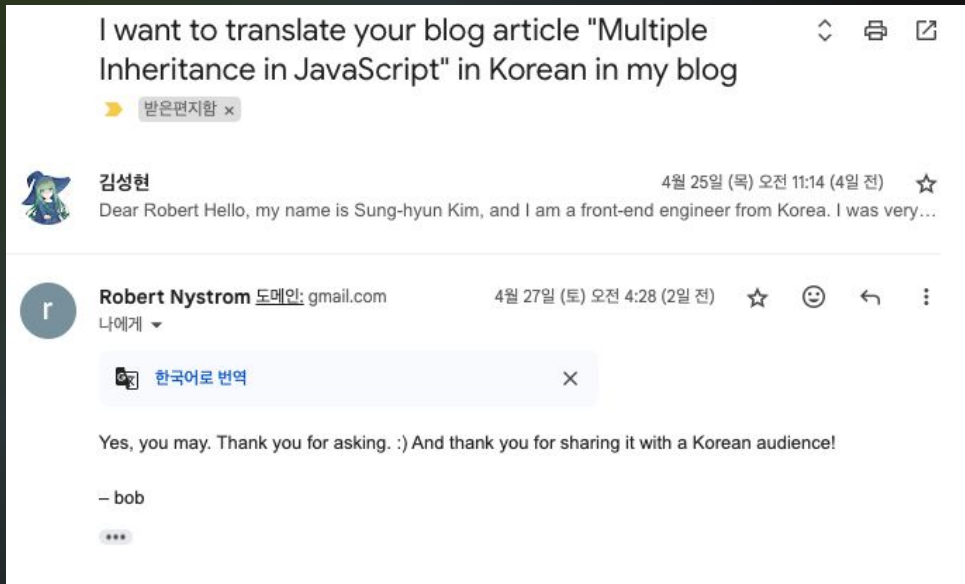
70명 중 딱 2명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

- 다른 시니어들이나 C레벨에게 물어봐도 먼저 연락을 주는 건 10% 미만
- 직접 행동만 취해도 10%로 보일 수 있다!
- 개발로 10% 되는 것보다 훨씬 쉬움

적극적이기만 한 바보가
되지는 말고...



생각보다 정말 쉽다



아무리 거물 개발자라도
관심 가져주면 좋아한다...

구글 개발자에게 콜드메일 써서 받은 답장

상대가 바쁘지 않겠냐구요?

- 어차피 누구나 다 바쁨. 나는 그럼 한가해서 연락하나?
- 근데 나한테 순수하게 관심 가져주면 시간 내주고 싶은게 인지상정
- 상대가 진짜 바빠서 거절하더라도 인상은 남길 수 있음

모두와 친구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적극성이 쌓이면 자산이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저

- 복전 이후 컴공 본전공 정보로 아쉬워 본 적도 없고
- 현직자 정보를 몰라서 아쉬워 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냥 찢어서 물어보면 되니까

모두와 친구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적극성이 쌓이면 자산이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저

- 복전 이후 컴공 본전공 정보로 아쉬워 본 적도 없고
- 현직자 정보를 몰라서 아쉬워 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냥 찢어서 물어보면 되니까

적극적으로 메시지만
보내도 돋보인다

다시, 모두와 친구가 될 수는 없다



근데 그럼 관심없는
일곱 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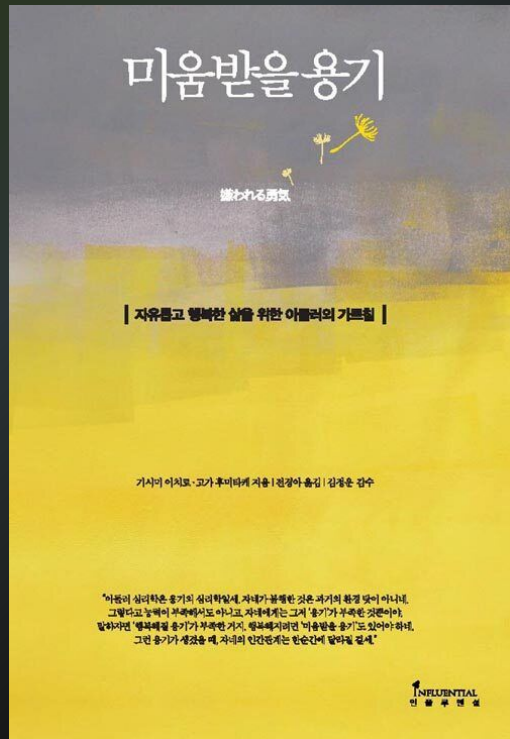
→ 업무적으로만 보거나 한 두번
보고 끝

그렇게 만났다. 이제 어떻게 인상을 남길까?

적절히 솔직해지자

- 솔직함은 좀더 내밀하게 가깝다는 느낌을 준다
- 첫 만남에도 빠르게 가까워지는 느낌을 줄 수 있음

솔직함이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어차피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 없었다

받아들여지기 쉬운 솔직함

적당히 납득할 만한 이야기도 많다

- 누군가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를 한 대 치고 싶었다든가
- 이전의 어떤 경험을 후회한다든가
- 사람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자신만의 목표가 있다든지

어차피 이 이상의 이야기는
꺼내기도 쉽지 않다

이 발표도 나름 솔직했다

- 우리 대부분은 고수 개발자가 아니라든지
- 모두와 친구가 될 수는 없다든지
- 제가 가진 지병도 이야기했죠

즐기만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납득할 만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됩니다

큰 임팩트의 커피챗 경험 하나

3년차 프론트 개발자 K님과 커피챗

- 어떤 프론트 개발자가 되고 싶냐는 이야기를 함
- 나의 목표에 대해 “프론트의 목표는 아닌 듯 하다”는 평가
- 그래서 프론트에게 적절한 목표란 무엇인가를 잠시 논쟁
- 난감했고 쉽지 않았다

→ 하지만 도움이 되었고 솔직하게 논쟁해 줌에 감사했다

다른 개발자들을 만나다 보면...

- 추천서 써주겠다는 제안도 받게 됨
- 내 이미지뿐 아니라 나 자신도 변함
 - K님 등과의 대화는 내게 개발의 의미를 많이 생각해 보게 함
 - 앞선 섹션의 내용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만들어진 것
- 이력서 피드백/이직 정보 받기도 쉬움

일부와 친구가 되고 나머지와는 게임을 하자

내가 좀 더 좋은 인상을 남기고 기억에 남기 위해서

- 적극적인 모습 보이기
- 솔직하게 대하기

방법론이 중요한 건 아니다

친구가 되지 못할 70%의
공약을 생각하는 게 핵심

정리 & 질문

개발의 의미를 생각하기

- 당신에게 개발은 무엇인가?
- 그 대답을 뒷받침하는 선택과 시간을 구성하라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는 소통

- 어떻게 가벼운 관계들을 공략할지를 생각하라
- 깊은 관계들을 등한시하라는 건 아님
- 가벼운 관계일수록 작은 액션으로 큰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